



# 문재인 대통령은 시구 연습하고 있을까?

**‘동네야구 4번 타자’·경희대 교내 야구 주장 ‘야구광’  
대선 기간 ‘투표 인증 1위 팀서 시구’ 공약...KIA 1위  
25일 광주서 한국시리즈 1차전 앞두고 팬들 관심 집중**

이트에 직접 “‘동네야구 4번 타자’ 문재인 인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는 등 야구와 인연이 깊다.

경희대 재학 시절 교내 학년 대항 야구대회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문 대통령은 1988년 ‘무쇠팔’ 故 최동원 감독이 중심이 됐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구성에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포스트 시즌의 시구자는 KBO가 직접 선정한다. 사직구장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는 ‘불사조’ 박철순이 시구자로 등장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화끈한 지지 속에 19대 대통령에 오른 ‘야구팬’이 프로야구 잔치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생애 첫 시구를 하며, 공약을 이행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공약을 실현할까?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2017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주인공을 가리는 한국시리즈가 시작된다.

8만 명의 한국시리즈를 앞둔 KIA 타이거즈 팬들은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를 지켜보면서 가슴 떨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KIA 팬들에게는 ‘어느 팀이 한국시리즈 파트너가 될 것인가’만큼이나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누가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자로 나갈까?’이다.

2009년 이후 처음 정규 시즌을 1위로

마감하면서 맞이한 영광의 무대이자, 지난 2014년 개장 이후 처음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가을 잔치’이기 때문에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자의 의미는 남다르다.

1차전 시구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2017 투표 참여 리그’라는 야구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2017 투표 참여 리그’는 투표 독려 또는 투표 인증샷을 문재인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는

이벤트로, 응원하는 팀을 기준으로 응원샷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이 이벤트에는 ‘투표 인증 1위 팀으로 가서 시구한다’는 공약이 걸려있었고, 1위는 KIA가 차지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찾게 될 야구장은 챔피언스필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올 시즌 KIA가 정규시즌 챔피언 자격으로 한국시리즈 1차전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르게 되면서 ‘야구광’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에 나설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야구 명문’ 경남중-경남고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한 야구 관련 사

## LA 29년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1’

시카고 컵스 6-1 제압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저스는 18일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3차전에서 6-1로 완승했다.

1988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지 못한 다저스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내리 승리해 1승만 더하면 목은 한(恨)을 풀 수 있게 됐다.

반면 지난해 108년 만의 우승으로 ‘염소의 저주’에서 벗어난 컵스는 탄탄한 전력에 앞세워 챔피언십시리즈까지는 안착했지만, 막강 전력의 다저스에 밀려 탈락 위기에 놓였다.

앞선 2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취점은 컵스의 몫이었다. 컵스는 1회 말 1사 후 카일 슈와버가 다저스 선발 다르빗슈 유를 상대로 선제 솔로포를 때렸지만 그게 마지막

득점이었다.

반격에 나선 다저스는 앤드리 이시어가 2회 초 동점 솔로 홈런을 터트린 데 이어 3회 초 크리스 테일러의 역전 1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5회 초에는 선두타자 쪽 피디슨의 2루타와 테일러의 3루타를 묶어 1점을 달아냈고, 6회 초 2사 만루에서는 다르빗슈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 1점을 추가했다. 8회초 무사 2·3루에서는 상대 포수의 패스트볼과 카일 필머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보냈다.

다저스 선발 다르빗슈는 6.1이닝 6피안타 1피홈런 7탈삼진 1실점으로 제 몫을 했다.

정규시즌 막판 부진으로 다저스에 고민을 안겨줬던 다르빗슈는 디비전시리즈 3차전 승리(5이닝 2피안타 1실점)에 이어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까지 승리를 수확해 이쁨을 했다.

다저스와 컵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시리즈 4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양궁 결승까지 퍼펙트

세계선수권 리커브 단체 16강~준결 한 세트도 허용 안해

양궁 여자대표팀이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리커브 단체 결승에 진출했다.

최미선(광주여대), 장혜진(LH), 강재영(경희대)은 18일 진행된 리커브 여자단체 준결승에서 중국을 세트 승점 6-0으로 완파했다.

대표팀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16강전과 조지아와 붙은 8강전에 이어 준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상대 팀을 완벽히 제압했다.

23일 결승전에서는 홈팀 멕시코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오진혁(현대제철), 임동원, 김우진(이상 청주시청)의 남자부는 16강전에서 스페인,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를 꺾었으나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에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준결승에서 대표팀은 이탈리아와 샷오프까지 동점이었으나 이탈리아의 화살이 중앙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정받아 아쉽게 패했다.

이날 열린 여자 리커브 개인전 예선에서는 강재영이 684점, 장혜진이 683점으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고, 최미선은 671점으로 4위에 오르며 32강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평창 실전 테스트 18일 오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실전테스트 공개현장에서 봅슬레이 2인승 원윤중-서영우 선수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도, PGA 타고 세계로

19~22일 CJ컵 옛 나인브리지스 227개국에 생방송

‘세계자연유산 제주’ 브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생방송을 타고 세계 10억 가구를 찾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 나인브리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더 CJ컵 옛 나인브리지스’(이하 CJ컵)가 세계 227개국 10억 가구에 생방송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PGA 정규 투어 대회로 ‘제주’ 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참가 선수 중 가난과 희소성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아이콘인 호주의 제이슨 데이와 호주를 대표하는 노련한 승부사 아담 스콧을 모델로 각각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제이슨 데이는 형제섬이 보이는 서귀포시 언덕면 사계리 해안의 한 식당에서 해녀가 금방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맛본다. 그는 이등 중에 가볍게 춤을 추며 케이팝

(K-POP)을 따라 부르고, 세계지질공원 명소 중 한 곳인 용머리해안을 돌아본다.

아담 스콧은 중문관광단지 내 바닷가 식당에서 제주산 흑돼지고기를 맛보고,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다. 이들은 홍보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주어로 ‘츨말로 좋수다’(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프로모션 영상은 4편으로 제작돼 대회 기간에 하루 1편씩 방영된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사람, 자연과 액티비티, 음식의 즐거움을 컨셉으로 한 홍보영상도 30개 언어로 제작돼 대회 기간에 지속해서 노출된다. 나인브리지스 골프클럽 1번 홀과 10번 홀 티 펜스에는 제주 홍보용 보드가 붙어 있다.

도는 미디어홍보 효과는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효과는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배구 절대 강자 없다... 흥행은 있다

V리그 개막 후 3경기 풀세트 접전...승점 3점 팀 없어

IBK기업은행·현대건설·GS칼텍스 각각 2점씩 기록

지난 14일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가 개막한 이래 여자부에서 승점 3을 챙긴 팀은 아직 없다.

17일까지 열린 3경기가 모두 5세트까지 이어진 풀 세트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세트 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긴 팀은 승점 3을 얻는다. 세트 스코어 3-2로 이긴 팀은 승점 2를, 진 팀도 승점 1을 획득한다.

개막전에서 IBK기업은행은 흥국생명에게 세트 스코어 3-2로 간신히 따돌렸다.

현대건설과 GS칼텍스도 각각 KGC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물리치고 승점 2씩 기록했다.

시즌 직전 미디어데이에서 ‘2강’으로 평가받은 IBK기업은행은 승리로 시즌을 시작한 데 반해 도로공사는 17일 GS칼텍스에 아쉽게 패했다. 사상 유례없는 선수 이동이 낳은 전력 편중화 덕분에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세트 김사나의 은퇴, 공격수 박정아의 도로공사 이적 등으로 주전 대부분이 바뀐 IBK기업은행은 흥국생명과 일전에서 5세트에 흐름을 뒤집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뽐냈다.

현대건설도 2년 만에 복귀한 외국인 주포 테일러 심슨(등록명 심슨)이 공격 득점 44점과 블로킹 4점을 합쳐 무려 48점을 터뜨리며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현대건설도 KGC인삼공사와의 5세트 듀스 접전 끝에 승리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양효진, 김세영 센터라인의 두꺼운 블로킹 벽과 황연주·황민경 날개 공격수의 공격력이 조화를 이뤘다. /연합뉴스

KGC인삼공사는 비록 패했지만, 지난 시즌 최고 외국인 선수 알레나 버그스마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트레이드 영입한 레프트 한송이의 앙상블로 끈끈한 팀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천안·넵스컵 프로배구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는 세네갈 국가대표 출신의 파투우 듀크(등록명 듀크), 레프트 강소휘, 라이트 표승주 삼각 편대의 짜임새가 예상롭지 않다.

도로공사는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박정아가 공격 성공률을 높여 주포 이바나 네소비치(등록명 이바나)와 막강한 샹포를 이루면 우승후보다도 경기력을 선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배상문·저스틴 토머스·팻 페레스 한 조

배상문이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저스틴 토머스, 팻 페레스(이상 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한다.

PGA투어 사무국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더CJ컵옛나인브리지스(이하 CJ컵)의 1, 2라운드 조 편성을 발표했다.

배상문은 1라운드가 시작되는 19일 오전 8시 30분 토머스, 페레스와 10번 홀부터 출발한다. 토머스는 2016-2017 PGA 투어 페데스컵 우승자다. 지난 시즌 5승을 차지하고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됐다. 페레스는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CIMB 클래식에서 우승한 바 있다.

배상문은 지난 8월 전역한 이후 이번 대회가 PGA 투어 2번째 출전이다. 2017-2018 개막전이었던 세이프 오픈에서는 컷

탈락한 바 있다.

김시우는 배상문-토머스-페레스의 바로 뒤에서 제이슨 데이, 애덤 스콧(이상 호주)과 함께 출발한다.

‘만행’ 최경주는 오전 9시 40분 1번 홀에서 시작한다. 베네수엘라 선수로는 처음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했던 조나탄 베가스, 패트릭 리드(미국)가 동반 플레이어다.

CIMB 클래식에서 3위에 올랐던 강성훈은 오전 9시 20분 키건 브래들리(미국), 야니르반 라리리(인도)와 함께 10번 홀에서 티샷을 한다.

안병훈은 오전 10시 J.B.홈스, 케빈 나(이상 미국)와 1번 홀을 나서고, 왕정훈은 같은 시간 루카스 클로버, 올리 슈나이더젠스(이상 미국)와 10번 홀에서 시작한다. /연합뉴스